

즐기자! 아시아 문화를 만나는 시간

ACC 라이브러리파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19회 강좌
24일 나경수 교수 '남도 민속학 대부 '지춘상' 강의
11월까지 SNS 글쓰기·공예·낭독 등 체험프로그램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 공간 가운데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신문, 잡지 등이 소장돼 있는 곳이다.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 등은 향후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돼 시민들에게 자료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CC의 소장 아카이브 자료를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강의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올레'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고(故) 지춘상 교수는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와 '강강술래'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를 발굴·전승에 기여했다.

'2022 인조이(Enjoy) 라이브러리 파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남도 민속학의 대부 '지춘상', 양림동이 낳은 음악인류학자 '정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끈다. 오는 24일부터 12월까지 총 5종 19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1차로 오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 3시) 5회 강연이 라이브러리파크 B4 강의실에서 열린다. 먼저 24일 첫 강의는 나경수(사진) 전남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가 문을 연다. 나 교수는 '지춘상의 남도 놀이-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와 진도 해남 강강

이번 강연에서 나 교수는 '강강술래' 중 '진도-해남 강강술래' 발굴과정이 담긴 연구자료와 사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계기로 우리 민속놀이의 역동성과 해학적, 집단 놀이의 창의성을 조명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민속학회 회장인 나 교수는 진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의 신화 연구' 등 10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오는 31일에는 김보희 연세대 국제학부 교수가 '음악 인류학자 정추'를 강연한다. 양림동 출신으로 카자흐스탄 아주 작곡가인 정추의 악보를 비롯해 사진, 서신 등을 통해 이주작곡가로서 서양의 오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음계에 우리의 민족적 정서를 차용하고자 했던 정추의 흔적과 업적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양대 음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소비에트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 '소비에트 고려민족의 노래' 등의 저서를 발간했다. 한국의 근대화를 기록한 사진가로서 조명하는 시간

도 있다. 한금현 큐레이터는 '한국 근대화를 기록한 사진가의 시선과 작품' (9월 7일)을 주제로 근대화를 이야기한다. 한 큐레이터는 예술적 사진을 생산해온 김한용, 강봉규, 이경모, 김기찬, 정정희의 시선을 주목해 이들의 작품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부장을 역임했던 한 큐레이터는 김한용 특별전 등 다수의 주요 전시를 기획했다. 네 번째 강연은 이재숙 한국외국어대 미네르바인문 교수가 '남인도 쌀수확 축제 풍갈 및 힌두신화 세계관과 문화유산' (9월 14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 교수는 남인도의 대표 벼수확 축제 풍갈과 춤을 집중 조명하고 춤, 축제, 의식, 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을 재현해 나가는 남인도 지역 문화의 배경과 역사를 소개한다. 이 교수는 인도 델리대학원 산스크리트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우파니샤드'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마지막 강연은 9월 21일 박일구 사진작가가 '한국 근대화 사진을 통한 골목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박 작가는 아이사의 사진 컬렉션의 문화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 작가는 '바다로 가는 길', '사라지고도 남겨진' 전시 등을 진행했다. 한편 체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파크 워크숍'은 11월까지 라이브러리파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는 28일 고도연 강사(광주블로그 교육센터)는 '인플루언서처럼: SNS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 이어 보자기 공예, 그림책 낭독, 수묵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헝가리 거장 감독 미클로시 안초 작품 속으로

광주시네마테크, 탄생 100주년 특별전...26일~9월9일 광주극장
'칸타타'·'적과 백'·'붉은 시편' 등 영화 6편 상영...강연·시네토크도



미클로시 안초

헝가리 출신의 영화계 거장 미클로시 안초 (1921.9.27-2014.1.31)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미클로시 안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공산권 영화로는 드물게 지식인의 위기의식을 담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클로시 안초가 극영화 감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칸타타' (1963)와 세계 영화사의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적과 백' (1967), 1972년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붉은

시편' (1972), '검거', '대결', '아뉴스 데이' 등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 6편이 상영된다.

미클로시 안초는 1921년 헝가리 바크에서 태어났으며, 80여 편이 넘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연출한 예술가다. 명성에 비해 그의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 자리는 많지 않았으나, 1988년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한 한국-헝가리 합작 공연 '노스토티(회귀)-불의 아해들'의 연출자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1960-1970년대 만들어진 안초의 작품은 후대 영화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헝가리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거장 벨라 타르의 본인 영화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미클로시 안초를 지목한 바 있다.

안초 특유의 혁신적인 영화 언어와 정치, 사회, 역사를 성찰하는 주제의식이 최절정으로 조화를 이룬 전성기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연도 마련된다. 27일 '적과 백' 상영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 유진일 교수가 '유럽 속 아시아,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9월 8일 '검거' 상영 후에는 유은성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가 진행된다.

한편 광주극장은 오는 25일 제74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와 사랑도 취업도 맡아먹은 스텔라잇 살 '주리'의 달달하고 기운찬 자력갱생 프로젝트를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연출로 담은 신예 박민승 감독의 장편 데뷔작 '말야'를 개봉한다. 31일에는 칸영화제 3관왕을 차지한 멕시코의 젊은 거장 미셸 프랑코 감독의 신작 '천다운'이 개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영화 '붉은시편'

오페라로 만나는 슬픈 사랑 이야기

빛소리 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27일 광주아트홀

빛소리 오페라단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상영된다.

뒤마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 파리 사교계의 여왕 비올레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르디가 작곡한 음악 가운데 유명한 '축배의 노래'와 '천국처럼 행복한 날'을 이중창으로 들려주며 비올레타의 아리아 '아, 그이었던가', 알프레도의 아리아 '그녀를 멀리 떠나서', 제르몽의 아리아 '고향 프로방스의 산과 바다를 생각해 보렴' 등을 선사한다. 서막과 간주곡 연주는 플루트와 피아노 등이 맡는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에는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이 참여하며 전문해설가가 장편과 장면 사이에 출연, 알기 쉬운 해설을 덧붙인다.

총감독 및 연출 최덕식, 지휘 박미애가 참여하며 비올레타 역 소프라노 장희정, 안니나 역 소프라노 박정희, 알프레도 역 테너 김용덕, 제르몽 역 바리

톤 김중우가 호흡을 맞춘다. 해설은 바리톤 권용만이 맡으며 플루트 박지혜 피아노 천현주, 엘렉톤 장희경(빛소리오페라단 음악코치)이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아트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 '라 트라비아타'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광주아트홀에서 공연된다. 관람 문자예약 010-2228-7040. /김민석 기자 mskim@

추상의 언어, 조형세계로의 초대

우종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김환기 등 대가 작품 한자리에

우종미술관(관장 우영인)이 박돈·오수환 등 20여명의 작가 작품을 만난 '기억의 파동', 사갈·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 '색과 빛을 그리다'전에 이은 2022년 세번째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김환기

지난 2008년 보성 컨트리클럽에 문을 연 우종미술관(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은 친환경기업 (주)와이엔텍 설립자 박용하 회장이 설립한 곳으로 수준 높은 근·현대 회화작품과 함께 북공예, 도자기를 비롯한 고미술품 등 모두 1500여점의 작품을 소장중이다. 미술관은 2008년 10월 개관전시 '현대미술의 발자취'전을 시작으로 매년 소장 작품전을 통해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추상의 언어, 조형세계로의 초대'를 주제로 오는 10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소장품전에서는 이우환, 박서보, 데미안 허스트, 김환기, 남관, 하인두, 김홍, 오수환, 박현수, 이응로, 호안미로 등 국내외의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은 이번 전시와 연계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프로그램 '알록달록, 멋내기 칠보 공작소'는 큐레이터의 전시 해설과 함께 '추상의 언어'전을 관람한 후 전통공예 기법인 칠보 공예를 이해하고 칠보 팔찌와 칠보 거울 등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획이다.



'칠보 거울'

오는 31일, 9월28일, 10월26일 세차례 열리는 회화 당 12~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가비와 미술관 입장료는 무료다. 미술관 월·화요일 휴무. 관람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5시.문의 061-804-1092. /김미은 기자 mekim@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누가 좀 알려줘요



국립나주박물관 성교육 인형극...27~28일 온라인 진행

어린이 스스로 몸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을 주제로 한 교육 뮤지컬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뮤지컬은 유아 성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오는 27~28일 인형극 '엄마는 안 가르쳐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진행되는 이번 인형극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뮤지컬은 기존 뮤지컬로 달리 블랙라이트를 접목해 새로운 형식의 인형극으로 펼쳐지며 우리 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

췌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해 하던 극중 캐릭터들이 엄마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알게 된다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나주박물관은 "과학적 지식과 정서적 감수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부모들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성교육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음악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061-330-7841)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